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40호

종합 3위 수성...2위 일본과 금메달 격차 줄여

'종합 3위·금메달 42개' 항저우AG 한국 선수단 본진 귀국

박윤서 뉴시스 기자

첫날, 제주-성남-충남아산 '조 1위 등극'

장애인·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진 '스페셜올림픽 K리그 유니파이드컵'

박찬준 스포츠조선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국가대표에 해병대 극기훈련” 회장 발언, 기성 체육 현실이다

이준희 한겨레 기자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침해 재발 규탄' 기자회견

경주 시민단체, 선수 갑질·폭언 의혹 체육회장 사퇴 촉구

이은희 뉴시스 기자

국기원, '태권도의 세계화'

태권도 세계화 위해 직접 된다...이동섭 원장, 美 방문 적극 행보

김희웅 일간스포츠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종합 3위 금메달 42개' 항저우AG 한국 선수단 본진 귀국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감동과 환희를 선사한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입국했다. 대한민국 선수단 본부 임원을 비롯한 아티스틱스위밍, 브레이킹 대표팀 등 45여명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아시아인의 스포츠 대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지난 8일 폐회식을 열고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당초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돼 치러졌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엔데믹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종합대회로 45개국 1만200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39개 종목, 역대 최다 규모인 1140명을 파견했고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모두 19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당초 한국은 종합 순위 3위와 금메달 45~50개를 목표로 삼았다. 비록 추구했던 금메달 개수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종합 3위를 수성했고 2위 일본(금 52개·은 67개·동 69개)과의 금메달 격차를 10개로 줄였다.

직전 대회인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49개(은 58개·동 70개)를 획득했으나 일본(금 75개·은 56개·동 74개)과 금메달 26개 차이가 났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수영 김우민(강원도청)과 양궁 임시현(한국체대)이 나란히 대회 3관왕에 등극하며 금빛 질주의 선봉에 섰다.

김우민은 자유형 400m와 800m, 계영 8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임시현은 여자 단체전, 혼성전 그리고 개인전에서 금빛 활시위를 당겼다.

2관왕(여자 단식, 여자 단체전)을 차지한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과 금메달 1개(여자 복식), 동메달 3개(여자 단식, 혼합 복식, 여자 단체전)를 쓸어 담은 신유빈(대한항공)의 활약도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한국 스포츠의 인기 종목 축구와 야구는 사이 좋게 금메달을 수확했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한 축구 대표팀은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의 3연패를 달성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끈 야구 대표팀은 2010 광저우 대회부터 시작된 금메달의 영광을 이번 대회에서도 재현하며 아시안게임 4연패 위업을 이뤘다.

아시안게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던 선수단은 또 하나의 금빛 드라마를 준비한다. 내년 7월 막을 여는 2024 파리 올림픽에 시선을 고정한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진 '스페셜올림픽 K리그 유니파이드컵' 첫 날, 제주-성남-충남아산 '조 1위 등극'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축구대회인 '2023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K리그 통합축구 유니파이드컵(Unified Cup·이하 유니파이드컵)' 첫 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유니파이드컵은 6일부터 8일까지 대전안영생활체육공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주최, 주관하며, 하나금융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다. 동원샘물과 링티가 협찬에 나섰다.

K리그 10팀과 연맹 1팀, 총 11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 1라운드 로빈방식으로 펼쳐졌다. 이 대회는 팀별로 최대 25명(발달장애인 10명, 파트너 10명, 코칭스태프 5명)으로 선수단을 꾸릴 수 있다. 발달장애인 6명, 파트너 5명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려 전·후반 각 20분씩 경기한다. 비장애인인 파트너 선수가 연속 득점할 수 없는 '로컬룰'을 뒀다. 승점-득실차-승자승-추첨 순으로, 각 그룹 1~3위까지 메달, 4위는 배지를 수여한다.

A그룹에서는 제주가 1위에 올랐다. 부천을 1대0, 부산을 4대2로 제압한 제주는 2승으로 조 선두를 달렸다. 경남(골득실 +2)과 부산(-1)은 나란히 1승1패를 기록했지만, 득실차로 순위를 나눴다. 부천은 2패를 기록했다.

B그룹에서는 성남이 1위에 자리했다. 성남은 포항과 1대1로 비긴 후, 인천을 3대0으로 제압했다. 전북도 성남과 같은 1승1무를 거뒀지만, 득실차에 밀려 2위에 자리했다. 포항과 인천도 나란히 1무1패를 기록했지만, 득실차로 3, 4위를 구분 지었다.

3팀이 참가한 C그룹에서는 충남아산이 1위를 차지했다. 충남아산은 대전을 2대1, 연맹을 6대1로 꺾었다. 대전이 1승1패, 연맹이 2패로 그 뒤를 이었다.

8일 같은 장소에서 2일차 경기가 펼쳐진다.

오전 11시부터 대전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는 '하나어울림축구장 페스티벌'도 진행된다. '하나어울림축구장 페스티벌'은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시즌3의 일환으로 열린다.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은 연맹과 K리그 타이틀 스폰서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2020년부터 실시 중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시즌 1, 2에서 이동 약자들의 관람 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이번 시즌3에서는 장애인을 직접 스포츠에 참여시켜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발달장애인 도예가와 함께하는 도자기 텀블러 만들기, 발달장애인 마술 공연, 하나아트버스 공모작 전시회, 휠체어 드리블존, 블라인드 패스존, 고알레와 함께하는 축구클리닉, 슈팅 챌린지, 프리킥 챌린지 SOK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부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참가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경품도 준비됐다. 참가자 중 체험 스탬프 취합 완료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작가가 디자인한 파우치, 대전하나시티즌 선수단 친필 사인볼, 아디다스 가방 등을 증정한다.

“국가대표에 해병대 극기훈련” 회장 발언, 기성 체육 현실이다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하기 전에 모두 해병대 극기훈련을 받게 하겠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8일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려는 찰나, 발언을 자청해 파리올림픽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었다. “저도 같이 받겠다”라며 웃었지만, 현장의 기자들은 웅성댔다. 직전까지 “옛날 방식으론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이 회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이기흥 회장은 비장한 표정이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2개(은메달 59개, 동메달 89)를 땀다. 중국(금 201·은 111·동 71)과 일본(금 52·은 67·동 65)에 이은 종합 3위다. 애초 기대했던 금메달 45~50개에 다소 모자랐다. 하지만 일본과 격차를 좁히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금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국에 돌아가면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해보려고 한다”라며 “우리가 너무 우물 안 개구리였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제 부문을 강화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요즘 선수들은 새벽 운동을 안 하려고 한다. 강제적으로 하게 할 수도 없다. 이게 심화하면 인권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선수 수급도 문제다. 풀뿌리에 팀이 없고 선수가 없다”고 했다.

위기를 느낄 만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준수한 성적을 냈다. 하지만 내실은 부실했다. 신유빈(19·대한항공), 안세영(21·삼성생명), 황선우(20·강원도청) 같은 샛별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비인기종목을 중심으로 젊은 선수가 없어 허덕였다. ‘베테랑’의 투혼은 그 자체로 감동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대체할 신인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종합 4위를 기록한 인도(금 28·은 38·동 41) 등의 추격도 매섭다.

문제는 이런 지적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수없이 제기돼왔다는 점이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저변 확대 등 대안이 제시돼있다. 하지만 이 회장을 비롯한 기성 체육계는 이런 주장이 ‘엘리트 체육 죽이기’라고 반발해왔다. 이분법적 사고다. 도쿄올림픽에서 성공한 일본의 배경에는 수많은 스포츠 클럽이란 토대가 있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올림픽을 앞두고 엘리트 체육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 사이 한국은 10대가 60대보다 운동량이 부족한 나라가 됐다.

선수 고갈과 스포츠 토대 붕괴라는 현실은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 이제라도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다행이지만,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대한체육회가 이번 대회를 치르고서야 관련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시작했다는 게 의아하기도 했다. 항저우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겠다고 산악구보, 새벽 운동 부활에 심야 시간 선수촌 인터넷 차단 등을 진행했던 것이 ‘진심 어린’ 노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 뒤 해단식에서 만난 몇몇 선수에게 해병대 훈련 이야기를 했다. 헛웃음을 보였다. 놀라기보다는 체념한 듯했다.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며 ‘극기’를 강조하는 일이 과거에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불합리였다면, 지금의 선수들에게는 일종의 우스개일지도 모른다. 헤겔을 패러디했던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극기훈련은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두 번째는 소극으로.”

경주 시민단체, 선수 갑질 폭언 의혹 체육회장 사퇴 촉구

경북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선수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을 받는 체육회장의 사퇴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한 17개 단체는 6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는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인권침해 가해자는 자진 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피해 선수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돌아온 것은 체육회장의 책임 회피였다”며 “계약의 책임자로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주시 체육회장은 시청 소속 남녀 선수들을 대상으로 ‘난 발렌타인 30년산 밑으로는 안돼’라며 비싼 양주를 요구하거나 폭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 2020년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충격을 더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경주시는 ‘성폭력 및 가혹행위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고 선수와 감독 28명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사건을 접수했다.

현재 해당 기관들은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노동인권센터 등은 “3년 전 최숙현 선수를 떠나보내며 가해자들은 중형에 처해지고 법이 개정되는 등 우리 사회는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다짐을 했다”면서 “경주시는 체육회에 위임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운영을 철회하고 직접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피해 선수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태권도 세계화 위해 직접 댄다... 이동섭 원장, 美 방문 적극 행보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국기원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기원 이동섭 원장이 9월27일~10월6일 미국 워싱턴 등을 찾아 미 정계 및 태권도계 등 다양한 사람들과 환담하고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화에 앞장 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범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2023 글로벌오픈국기원컵 국제태권도대회’에 참석, 선수들을 격려하는 등 최일선에서 뛰었다.

이동섭 원장은 9월30일 39개국 선수 1,700여 명 등 총 5,000여 명이 참석,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2023 글로벌오픈국기원컵 태권도대회’에서 로이 쿠퍼 주지사에게 명예 7단증을 수여했다.

쿠퍼 주지사 등은 태권도의 신체훈련뿐 아니라 정신수양에 대한 교육이념을 높이 평가, 미국 올림픽대표팀의 태권도훈련센터를 기존의 콜라라도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태권도에 특별한 애정을 쏟았다. 또 미 의회를 방문해 발레리 푸쉬, 웰리 니켈 연방의원에게 명예 6단을 수여했다. 이들은 이번 국기원컵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도와,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명예단증을 받은 발레리 푸쉬 의원은 “태권도가 미국에서 교육적 가치가 큰 스포츠다”며 기쁨의 눈물까지 보여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미국 내 관계자와 폭넓은 환담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10월 5일에는 주미대사관을 방문, 조현동 대사와 만나 미국태권도 현황, 내년에 개최될 미국대사배태권도대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대사는 향후 1세대 원로사범을 대사관으로 초청,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장을 수여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인 태권도 사랑을 실천했다. 또 미국 워싱턴평통 린다 한 회장과 이문형 간사 등도 면담, 태권도 활성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통일 등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동섭 원장은 “미국은 선교사를 파송해 대한민국에 자유와 평등, 인권 등의 씨앗을 뿌렸고 병력을 보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혈맹이다”면서 “인성교육, 예절 등 서구사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태권도가 미국 내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린다 한 워싱턴평통 회장은 “버지니아, 매릴랜드 주지사배 태권도대회 등의 개최를 추진해, 태권도를 통해 양국이 더 단단해지는 동맹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2034 WC 개최권 주세요, 맥주 허용하겠습니다!"...사우디 2034 WC 개최 '공개 선언', 드디어 '야욕' 드러냈다

<https://mydaily.co.kr/page/view/2023100708432025979>

"LIV골프서 뛰는 선수들, 세계랭킹 포인트 못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1009900007?input=1195m>

오세훈, 아시안게임 선수단 간담회.. "파리 올림픽 도전 응원"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10500239&wlog_tag3=naver

북한 아시안게임 선수단장 "불리한 조건 많았는데 성적 괜찮아"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1013900504?input=1195m>

놀자고 만든 스포츠 클릭 응원에 "제2 드루킹" 이 악무는 여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1070.html

'스포츠 미투'의 흔적 찾기

<https://www.ildaro.com/9741>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의날 기념행사 개최

<http://www.stoo.com/article.php?aid=89451818477>

장애인 인권 향상 위해...하나어울림축구장 페스티벌 개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UCJDGCS>

삼척시,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 인권 및 경기력 향상 심리 교육' 실시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55056?ref=naver>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